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3월 8일(금)

(음력 1월 28일)

Пятница

8 марта 2024 г.

№ 9 (1207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С праздником 8 Марта!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여성 여러분!

국제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성들은 따뜻하고도 감동을 주는 이 명절을 좋아합니다.

이날은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말들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스런 아내, 어머니, 할머니, 자매, 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성은 생명의 원천이고, 미와 조화, 지혜와 선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며,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주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집은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은 직업에서나 사회활동에서도 성공을 이뤄내시고, 항상 자신만의 뛰어난 매력으로 감탄을 자아내시기도 합니다.

가정은 우리 미래의 국민을 교육하는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어머니의 자장가와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와 서민의 전통적 가치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와 사할린주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젊은 가정들이 자가 주택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여성 여러분! 새로운 봄이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로 부터 기쁨과 따뜻한 사랑의 찬사를 전해주길 기원합니다.

여성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과 사랑과 친지들의 온정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국제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리마렌코 주지사, 민족 간 및 종교 간 관계위원회 회의 주재

사할린 지역 민족 간 및 종교 간 관계 위원회 회의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정부기관의 대표들을 비롯해 사할린 지역의 종교 및 사회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사할린 지역에는 120개의 민족 대표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139개의 종교단체들과 40개 이상의 민족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가장 다양하고, 밝고, 다채로운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공동목표로서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한다. 최근에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들은 바대로 우리 공동의 길이 옳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정한 과제의 성취를 위해 더욱 결속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주에는 민족 간 및 종교 간 관계 발전과 강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따라서 사회적 기획 시행을 위해 주 예산이 배정된다. 한 예로 지난해에는 장려금 경연의 일환으로 3개의 사회적 기획에 350만 루블리가 지원됐다. 2024년에는 추가된 3개 기획에 7백만 루블리가 배정된다. 사회적 기획 2차 경연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할린주에서는 민족 간 및 종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 축하 및 기념 행사를 비롯해 세미나, 포럼,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족단체의 기념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정교회 니카노르 대주교는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의 장병들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연합했다"고 강조하며 "지금 특수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구와 교인들이 사회기관과 우리 참전병들의 가족들에게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다."

(7면에 계속)

단신

주지사,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의 부인과 어머니들에게 3월 8일 선물 전달 지시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어머니와 부인들에게 축하하도록 담당기관에 지시한 가운데 꽃과 제과류를 사할린 전 지역에 배송했다. 그리고 주내 각 구역에서 3월 8일을 즈음해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사할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창립 300주년 기념

3월 4일(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창립 일을 맞아 극동 지부 방문회의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사할린의 학자들은 사할린의 주지사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로부터 명예증서와 감사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지부의 지부장 유리 쿨친과 회담이 조성됐다.

19대의 새로운 버스, 사할린 지방에 전달

사할린의 4개 지역에서 새로운 버스들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사할린주 교통부가 전했다. 우대조건으로 장기대출하는 특별 국고대출로 19대의 버스를 구입하여 그중 10대의 버스가 홈스크 지역에, 4대는 코르사코브 지역으로, 2대는 돌린스크 지역에 전달됐다.

'오스트롭나' 양계장 닭고기 판매 재개

사할린의 '오스트롭나' 양계장이 닭고기 판매를 재개했다. 닭고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주내(아니와, 홈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네웰스크) 몇몇 지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3월 11일경에는 마카로브와 포로나이스트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헤이허시 대표단,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

3월 4일(월) 중국의 헤이허시 인민정부 부시장 시추순을 단장으로하는 헤이허시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초청으로 방문해 양도시 간 관계발전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 대표단은 교육기관, 문화, 스포츠, 도시 시설들을 비롯해 기업체들을 방문했다. 이번 중국 대표단 방문은 여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릴 양국 5개 시의 시장들과 만남을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전했다.

이외에 중국대표단은 시행정부 및 시의회 공식인사와 만남을 가졌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과 문화회관도 방문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한덕순 씨

최근 70대 연령의 사할린 한인들은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려고 하고 있다. 제2의 청춘을 맞은 것 같다. 특히 여성분들이 취미를 즐기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그외 여러가지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한 덕순 (1952년 생) 씨가 역시 그렇다. 그녀는 4년째 세라믹 플로리스트리(керамическая флористика)에 푹 빠져 있다. 그녀가 만드는 꽃은 마치 생화 같다. 이야기 하지 않으면 손으로 만든 꽃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세라믹 플로리스트리는 '차가운 도자기'와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하여 꽃과 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세라믹 플로리스트리의 특징은 각 작품이 꽃잎의 곡선, 잎의 질감, 색조 등 가장 작은 세부 요소(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작업하는 것이다. 3년 전에 세라믹 플로리스트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한덕순 씨는 그 동안 기술을 많이 익혀 완성된 꽃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란 의문이 스스로 생긴다. 생화로 헛갈린 경

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 한 지인이 장미꽃 다발을 부탁했는데 집에 가져 가서 상에 두고 잠깐 외출했답니다. 30분 후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장미를 이미 물이 가득한 꽃병에 꽂았대요. '왜 꽃을 두고 가냐? 꽃이 바로 죽잖아'란 꾸지람을 그 친구가 들었단다."라고 한덕순 씨가 한 예를 들어 말했다.

'차가운 도자기'는 예술적인 조각에 사용되는 특별한 재료의 특별한 혼합물이다. 도자기는 아니다. 현재는 고분자 점토와 '차가운 도자기'를 사용하여 세라믹 플로리스트를 만든다. 바로 이 재료들이 꽃 만드는 데에 생생함을 준다 할까. 그리고 색상 선택도 중요하다. 모양을 만들면 색칠을 해야 하는 거다. 물론 만드는 사람의 기술도 중요하다.

그리고 꽃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정말 식물학을 잘 알아야 가능하다. 꽃 작업은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한다. 이에 대해 한덕순 씨가 작년 11월에 사할린주일본도서관에서 <차가운 도자기>의 따뜻한 세계> 개인전을 가졌을 때 말하였다.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열린 전시에는 장미, 모란꽃, 카네이션, 민들레, 방울꽃, 코스모스, 라일락, 국화, 양귀비꽃, 아이리스, 카밀레, 튜립 등이 출품되었는데 작품 하나하나가 놀라웠다. 필자는 특히 모란꽃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라일락은 수백 개 작은 꽃으로 구성되어 플로리스트 장인의 기술과 노력, 영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 앉아 하는 작업이니 중간중간 일어나서 춤 연습을 한다. 한덕순 씨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 단원이다. 60-70대 여성 6명이 뜻을 모아 2022년 4월에 새로 무용단을 창단했다.

한덕순 씨가 맨 처음엔 (2019)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회에서 한민족의 무용 기

초를 익혔고, 그리고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의 댄스수업에 나가 박역자 단장을 주축으로 한 '아리랑'무용단의 한민족 전통춤의 우아한 무용 동작에 푹 빠지게 되었다.

"사실 민족 춤을 출 생각과 욕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워낙 추고 싶어 해서 그저 따라갈 뿐이었어요. 건강 때문이라도 춤을 춰야 할 것 같기도 했어요."라고 한덕순 씨가 안무를 시작한 동기를 말했다.

'희망'무용단은 단장이 없는데 한덕순 씨가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단원들에게 '알림'을 전하며 공연스케줄을 잡는다. 예를 들어, '오늘 이러한 춤을 추니 어떤 공연복, 소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무용단 채팅방으로 보낸다. 이는 그녀의 책임감이 높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습관은 그가 전에 수석 회계원으로 일했던 시절에서 시작한 것 같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사할린 소련 상업 전문기술학교(전문대학)에서 회계경제학을 전공했다. 거기에서 3.5년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 레스토랑 요식업체에서 계속 일했

다. 차차 승진하여 1990년부터 여러 기업과 회사에서 수석 회계원으로 일해왔다. 주로 급식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한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초창기 한식 레스토랑에서 문을 열었던 '서울레스토랑'에서 수석 회계원으로 근무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수석 회계원으로서의 자격을 높이 평가한다. 2018년에 정년퇴직을 했으나 지금도 회계원으로 가끔 상담한다.

건강상으로는 어릴 때부터 스키를 탔던 한덕순 씨는 몇 년 전에 스키 타다가 넘어지면서 척추를 좀 다쳤는데 골다공증이 있어 고생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54세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두 아들도 그 당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지 않았다. 다쳤을 당시 딸 아들 키린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일본에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안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도시에 남아 근무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 이들에게 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는데 막내가 뜻밖에 집에 왔다. 그는 혼자 있는 어머

니가 걱정이 되어 6개월 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여기 와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족을 이루었다. 현재 한덕순 씨는 손자 3, 손녀 2의 할머니가 되었다.

사할린에 있는 아들 안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간다. 한덕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날에도 아들은 어머니 댁을 찾아 케이크와 선물을 남겼다고 한다.

한덕순 씨는 요즘 일정이 좀 바빠하다고 한다. 공연, 여러 행사가 많아졌고 무용 연습 시간도 많아졌고, 꽃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녀는 "우리는 춤추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러시아 속담을 좋아하는 한덕순 씨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한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뒤통을 배울 의욕이 강하다. 꽃과 춤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한덕순 씨를 비롯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세르게이 해 사범에게 러시아 스포츠 장인 칭호 수여

3월 3일(일) 기술스포츠 종목 스포츠 학교의 사범인 해 세르게이(사격 실습) 사범에게 '러시아 스포츠 장인' 명예칭호가 수여됐다. 해당 결정에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올레그 마티첸 장관이 승인 서명을 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해 세르게이 선수는 2023년 6월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카빈총 사격 실습에 따른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그는 카빈총 수동 재장전 표준형에서 금메달을 땀고, 결투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Сахалинцу Сергею Хе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3 марта,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исвоено тренеру спортшколы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Сергею Хе (практическая стрельб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иказ подпис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ег Матыци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спортсмен отличился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практической стрельбе из карабин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начале июня 2023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стандартном классе с ручным перезаряданием, а также серебряную награду в дуэли.

<동부 요새 - 쿠릴 산맥> 원정대 참가 경연 시작

러시아 지리학회 <동부 요새 - 쿠릴산맥> 원정대 참가를 위한 경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청년 학자 및 미디어 자원봉사자, 학술연구단에 주어진다. 러시아 지리학회 홍보부는 이미 몇 년간 걸쳐 학술연구단이 섬 사이를 오가며 한 섬에서 고정작업을 하는 가운데 생물 군집과 쿠릴열도들의 역사적 유물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때 중단되었다가 기나긴 수십 년이 지나서야 연구가 재개되었다."고 러시아 지리학회는 설명했다.

원정대 참가 경연의 지원자는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는 3월 25일까지다. 원정대의 탐험은 2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6월부터 7월까지 마투아섬과 오네코탄섬들을 탐험하고, 둘째 단계는 8월부터 9월까지 이투루프섬에서 탐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на участие в экспедиции «Восточный бастион — Курильская гряда»

Начало конкурса на участие в экспедиции «Восточный бастион — Курильская гряда» объявило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как молодые ученые и медиадобровольцы, так и науч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ообщили в РГО.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ГО напомнили, что научные группы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комплексно изучают биоценоз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артефакт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еремещаясь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либо работая стационарно на одном остров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озобновились после долгого, длинной в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перерыва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этой части России», — отметили в РГО.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будет открыт до 25 марта. Желающим отправиться в экспедицию над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Экспедиц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с июня по июль на островах Матуа и Онокотан, а второй — с августа по сентябрь на Итурупе.

사할린에서 라자레브곶까지 스키로 탐방, 러시아 지리학회가 조직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대표들이 포기비곶에서부터 라자레브곶까지 탐방대를 조직했다. 사할린과 대륙 사이 해협을 건너지 네벨스크가 개통한 지17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지리학회 대표가 전했다.

"러시아의 위대한 항해사인 겐나지 이와노비치 네벨스코이 탐험대가 포기비곶에서 라자레브곶까지 건넌 뱃길이 열린 지 175주년을 맞는다. 그는 '바이칼'선박을 타고 항해하며 사할린은 섬임을 증명하고, 해협을 발견했다. 러시아 지리학회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사할린과 대륙 사이의 노선을 통과했다. 올해 우리는 2시간 30분을 걸었다. 얼음이 솟아오르고, 심지어 자동차길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지만 우리는 라자레브곶까지 스키를 타고 가서 주요 명소들을

보고 돌아왔다."고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회원이자 이 탐방을 주도, 조직한 탐방대 참가 회원인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프가 소식을 전했다.

탐방대 조직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모으기 위함 이었고, 탐방대 참가자들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가 되었다고 러시아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회장 유리 알린 이 덧붙여 말했다.

Экспедицию до мыса Лазарева с Сахалина на лыжах организовали члены островного Р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спедицию от мыса Погиби до мыса Лазарев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тили 175-летию открытия пролива между материком и Сахалином Геннадием Невельским, сообщ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деления.

«Переход между мысами Погиби и Лазарева был посвящен 175-летию экспедиции Геннадия Ивановича Невельского,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мореплавателя, который на судне "Байкал" выяснил, что 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островом, то есть открыл пролив. Группа членов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составе пяти человек прошла маршрут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 рассказал Sakh.online главный инициатор, организатор и участник экспедиции, член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ГО Александр Болотников. — Где-то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часа мы шли в этом году. Лед встал, там даже есть автомобильная дорога, некоторые ездят, но мы на лыжах дошли до мыса Лазарева и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осмотрели, а затем вернулись обратно».

Экспедицию организовали такж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значим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экспедиции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оверить себя, свои силы, со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тделения РГО на Сахалине Юрий Алин.

פורونايس크에서

<전 러시아는 우리의 정원> 전시회 개최

3월 1일(금) 포로나이스크 향토박물관에서 '체리 정원' (극장 무대에서)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브의 연극 초연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 러시아는 우리의 정원이다>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8면에 계속)

3월 4일 부터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올해 사업으로 270명 영주귀국 가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3월 4일(월)부터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신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에서 받고 있다. 사할린 같은 경우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를 찾아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은 2021, 2022, 2023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1명과 그의 배우자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예비 대상 인원은 총 270명이라고 밝혀졌는데 추후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작년에 재외동포청이 생겨 이번엔 참고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란 내용이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에 적혀 있다.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사할린 현지에서 2023년 11월 30일 진행되었고 그 이후 2023년 12월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된 가운데 올해 영주귀국사업에 관련 설명 자료는 약간 수정되었다.

올해도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이라고 적혀 있다.

영주귀국 지원 신청 마감은 6월 28일이고 지원자 선정 결과 발표는 9월에 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영주귀국 대상자는 당초 270명에서 사정으로 인해 취소자가 발생해 최종 287명이라고 전해졌다.

2024년 영주귀국 사업 관련 설명 자료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타당' 기획 마무리

2023년 10월 6일부터 '사할린 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타당' 기획이 시작되었다. '토론타당'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국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들은 사할린의 학자, 사할린 및 일본 대학의 교수,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전문가들이다. 이 기획의 주체는 사할린 주주마,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협력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였다.

'토론타당' 사회적 기획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제시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쟁점은 일본이 가라후토 시대 때 일본 우체국은행에 저축된 사할린 한인들의 저축금을 본인 또는 상속자들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 기획의 마지막 행사가 2024년 3월 1일(금)에 열린 가운데 진 율리아 역사학자는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요구와 한인 광부 예치금 납부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타당'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 동안 강사들이 강연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상기시켰다.

또한, 이번 '토론타당'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앞으로 사할린한인단체들에 활동지침이 될 수 있도록 결의안도 소개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토론타당'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미 디아스포라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제 러시아 연방이 사할린한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된 결의안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기획 주최 측은 '토론타당'을 통한 자료 수집과 계몽에 따른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진 율리아 박사, 연세대학교 용재신진학술상 수상

사할린 주립 향토박물관 학술편집부부장인 진 율리아 이바노브나 박사가 지난 7일(목) 한국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열린 '용재학술상' 시상식에서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연세대학교 용재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는 용재학술상은 문교부 장관과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용재 백낙준 박사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제30회를 맞이하였다.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오신 원로 학자에게 용재학술상이, 한국학 관련 훌륭한 연구서를 쓴 신진 학자에게 용재신진학술상이 수여된다.

올해에는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가 '용재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신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용재신진학술상은 강경현 성균관대 조교수와 진 율리아 <사할린 주립 박물관 소식> 책임 편집자에게 돌아갔다. 주최측은 용재학술상은 연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인문학 관련 학술상 중 권위가 높고 대외적으로도 의미 깊은 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용재신진학술상은 재일조선인 학자에게 수여된 적은 있었으나, 사회주의권 디아스포라 학자에게 수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뜻깊다.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상한 진 율리아 박사의 저서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김종현 역, 선인, 2020)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정을 '귀환'을 둘러싼 역사,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사할린 한인 사회가 당면한 현안 등에 초점을 맞춰 밝혀낸 역사서이다. 사할린 한인 형성 초기부터 1990



윤동섭 총장과 진 율리아 박사 (연세대학교 재공)

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기를 아우르면서 1세대와 1.5세대의 '귀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세대학교 신지영 교수(국학연구원, 비교문학 협동과정)는 "사회주의권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에서, 자세한 연구사와 자료 아카이브 현황을 소개하면서 구술자료를 비롯한 사할린 내부의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저서는, 향후 한국 및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연구 지평을 넓혀 주리라 기대된다"고 전해 왔다.

또한 진 율리아 박사는 3월 8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603호에서 열리는 제477회 국학연구원 발표회(용재기념강좌)에서 '가라후토 학살의 역사에 대한 연구: 기밀 해제 문서의 프리즘을 통해 본 1945년 8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사할린 한인 후손 일러스트 작가 정 마리나, 한옥서 특별한 전시

국내 작가 30명 참여한 '이음미음 더 플레이스 아트페어' 2월 27일 개막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패션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사할린 한인 후손 정 마리나 씨가 27일부터 한 달간 한옥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이날 개막해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근처 이음더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이음미음 더 플레이스 아트페어'에 초청됐다.

이 전시에는 정 작가를 비롯해 배우 겸 화가로 활동하는 윤송아 등 30명이 함께한다.

전시는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VIP 프리뷰를 거쳤고, 이날부터 대중에 오픈한다.

이음더플레이스는 1908년 지어진 도시형 한옥을 리모델링한 프라이빗 갤러리다. 원래 전통 한옥과 일본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건물이었으나, 2008년 전통 한옥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정 작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옥에서 개최되는 국내 첫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양에서 살면서 동양의 문화와 생활, 특히 한옥이란 공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평범함, 전통과 현대 사이를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상반된 면을 탐구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편이라고 한다.

정 작가가 과거 디지털 프린팅 방식으로 작업한 '꽃들 사이'(Among The Flowers), '부러진 꽃이 살아있다'(Broken Flower Alive), '마라 원더스 01'(Mara Wonders 01) 등 3점을 출품했다.

정 작가는 "봄이 시작하는 시기라 꽃이 담긴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았다."며 "방 안에 아름다운 꽃이 담긴 화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이음미음 더 플레이스 아트페어'에 참여한 사할린 한인 후손 정마리나 작가

[정 마리나 작가 제공]

지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길 바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라 원더스 01'은 그의 마라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그가 그림 안에서 설정한 가상 인물 '마라'는 그리스어로 '영원히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 작가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며 "마음이 아름다움과 공명하고, 행동이 아름다운 생각과 일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22~23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NFT(대체불가토큰) 코리아 페스티벌 2024'에 출품할 미디어 작품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를 조망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태어난 정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할아버지를 둔 한인 3세로,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어릴 적 러시아에서 미술학교에 다니며 디자인을 시작했지만, 국내 대학에서 패션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주로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한민족의 금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gmzil.ru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고.

문의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сильнейш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тхэквондо прош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единки проходили на татам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рина Рябк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Зинаида Гльвер.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регион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первенстве и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Среди тхэквондистов 12-14 лет в свои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ми стали Владислав Шпагин, Тимофей Тхагапсов, Артур Подымако, Полина Сапунова, Назар Грачёв, Елизавета Кувалдина, Алина Башмакова, Се Хи Су, Владислав Син, Артём Ким, Аина Санакова и Виктория Ильина.

Лучшими среди юниоров 15-17 лет признаны Максим Ли, Дмитрий Ким, Евгений Веселов, Альберт Чан, Максим Цой,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Елизавета Коркина и Виктория Беляева.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до 21 года золотые награды завоевали Олег Бадалян, Ли Чан Су,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Климентий Гуцин и Алина Цой.

В подгруппе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первые места заняли Альберт Чан,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Олег Бадалян и Ирина Ждано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вершила свою работу

С октября 2023 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ботала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 площадки проходила в форме лекций экспертов, а затем шло обсуждение, задавались вопросы. Лек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уче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вузов, сотрудник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бще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выяснение фактов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торые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Главная тема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облема денежных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Карафуту, которые Япония не выплатила до сих пор.

1 марта 2024 г. состояло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екта.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выступила с темой «Треб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выплаты вкладов корейских шахтеро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Карафуту», где подвела итоги Дис-

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сделала акцент на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ах лекций выступивших ученых. Также собравшимся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резолюция,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стать ориентиром дл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дальнейшей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ыдвиганию требований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Как отметила Пак Сун Ок,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озвученные вопросы уже поднимались активистами диаспоры, однако должного внимания к ним не было. Теперь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и, чтобы именно наше государство стало защитником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одного из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гласованный текст резолюции будет доступен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 сеть Интерне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ощадки уверили,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сбору материалов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начатой на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не прекратится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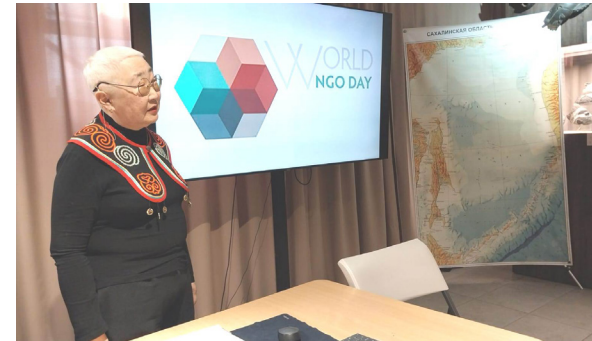
Наш корр.
Фото Виктории Б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НКО поговорили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29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НКО.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первые провозгласили в 2010 г. и с тех пор он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в мире 27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тоже стало регулярным.

Ведущий Федор Мыгун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всех гостей, рассказал о празднике и приз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НКО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й работ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емлячество Бурятия Байкал» (Ольга Цырендоржиева), мест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тата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ариса Малыше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Анатолий Лим) и Цент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МНС «Кых-кых(Лебедь)» (Александра Хурьон). Они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рассказал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их организаций,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роектах, показали фотографии и поделились планами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Последней выступающей стала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о недавно созд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Обществе изуч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Общество является новичком в современ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ысказала просьбу к коллегам о помощи в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Вручены премии имени Чехова

Побед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журналистских работ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граждение прошло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1 марта. На церемонию собр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руководители и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МИ,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Конкурсу журналистских работ имени Чехова уже более полувека, - напом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председатель жюри конкурса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 В советскую эпоху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ЖР проводило его ежегодно, и мы все можем гордиться, что возродили эту замечательную традицию. Диплом лауреата Чехов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престижной наградой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островных СМИ. По сути – это областная смотра наших журналистских талантов».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99 заявок, а конкурсные материалы опубликованы в 22 СМИ. Больше всего текстов прислали газетчики. За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редакционный проект» боролись шесть редакций. Порадовали своей активностью журналисты из районов: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Невельска, Холмска, Тымовского, Ноглик,

Охи и Курильска.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что шестеро коллег участвовал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тарт»,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журналистскую профессию на Сахалине активно приходит молодая смен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публикация в печатных СМИ» жюри присудило победу Юрию Фелицину,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газеты «Восход» (г. Корсаков), за статью «Невыдуманные истории» - интереснейш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моряков, работавших на судах дальнего плавания.

Газета «Восход» в этом конкурсном сезоне отличилась дважды, завоевав премию 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редакционный проект». Жюри отметило высокой наградой проект «Улицы Корсакова», в котором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на основе архивных «раскопок» рассказывают землякам об истории городских улиц, о том, как они когда-то назывались и меняли свой облик. Диплом и памятный знак получила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Зоя Вожжова.

Сегодня самая животрепещущая тема –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И почти пятая часть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сланы на 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ы теме СВО, ее бойцам, участию сахалинцев в поддержке земляков на фронте. Поэтому жюри учред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номинацию «Лучший материал об участи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остижении целей СВО». Причем, победителей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оказалось двое.



Одна из них – журналистка из Углегорска Снежанна Соколова – полтора года назад по зову души уехала в ДНР, где работает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студии телевидения небольшого донецкого города Шахтерска. Жюри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судило ей премию за телевизионный сюжет «Ребята с нашего двора».

Вторую награду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присудили Кристине Мерена, специальному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сетевого издания «Оха65.ру» за материал «Он был моим надежным плечом» - очень искренний, трогательный за живое рассказ жительницы г. Оха Ольги Ковалевой. Ее муж Игорь Ковалев в октябре 2022 года ушел добровольцем на СВО и погиб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боевого задания.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атериал на телевидении» стали Наталья Шабельник,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Невельские новости», и телеоператор агентства Алек-

сандр Стрельников, за телевизионный сюжет «Памяти Ивана Шеина». Авторы рассказали пронз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своего земляка, кавалера ордена Мужества, который отдал самое дорогое - жизнь, защищая на Украине интересы нашей страны.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атериал на радио» жюри присудило победу ветерану остров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адио ГТРК «Сахалин» Фаине Новоселовой за цикл радиопрограмм «Благовест».

Наград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публикация в интернет-СМИ» досталась спортивному журналисту Борису Храмову за материал «Шахматная «Табель о рангах» Сахалина». Номинацию «Лучший стар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журналистов, со стажем работы не более трех лет. В ней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Полина Семенчик,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елекомпании «АСТВ», за телевизионный сюжет «К 20-летию гибели губернатора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этом сезоне жюри впервые решило учредить номинацию «Творче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и вручать ее коллегам, удостоенным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журналис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начали присваивать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стал Сергей Тараканов,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который недавно стал первым заслуженным журналист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коло 7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могут быть лишены лицензий

Около семи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ых акциях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могут быть лишены лицензий на враче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4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е больниц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уже 14 дней работают в сокращённом режиме, поскольку около девяти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Лишение лицензий – необратимая мера, которая оставит неизгладимый след, влияющий на будущую врачебную карьеру», –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ак Мин Су.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министр Чо Гю Х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отно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к действиям, вызвавшим коллапс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таётся неизменным. Оно по-прежнему считает их «незакон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мет меры для наказания тех, кто не подчинился указанию вернуться на работу,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Кроме лишения лицензий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бастующим грозит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до трёх лет или штраф до 30 млн вон (22,5 тысячи долларов).

РК и США приступили к учениям Freedom Shield

4 марта в РК начались ежегод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учения Freedom Shield,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11 дней. Они включают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е учения с компьютерным моделированием и полевые манёвры на суше, море и в воздухе. Масштаб нынешних учений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прошлогод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з двух стран отработают перехва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нанесение воздушного удара, проведут тактические стрельбы. Учения укрепя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оюзных стран. При этом полевые манёвры н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близи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За ходом учений наблюд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12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включая Австралию,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Филиппины и Таиланд, а также комиссия нейтральных стран по контролю за перемирием в Корее.

Роман Хан Г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Эмиля Гиме

Ром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Хан Г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удостоен французской премии Эмиля Гиме в области азиа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Жюри выбрало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из трёх кандидатов. Награждение состоялось 29 февраля. Жюри отметило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изложения материала и актуальность темы произведения. Ром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описывает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глазами трёх женщин.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правления военны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но власти назвали мирное восстан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бунтом, жестоко подавив его. Премия Эмиля Гиме названа в честь француз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ика 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собирателя коллекций азиат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нователя первого музея истории религий. Она вручается с 2017 года литературны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азиат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зданным на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е. В 2018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стал роман «На закате» писателя Хван Сок Ёна.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2023 году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93,673 брака, что на 1%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 на 40% меньше, чем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Поскольк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неуклонно растёт с 2012 года,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прошлый рост является случайным. Ныне в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они объяснили изменениям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в семье и браке. Как показал недавний опрос, лишь 15,3%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3 лет считают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предписаний. В 2012 году так считали 20,3%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Доля тех, кто относится к браку положительно, сократилась с 42,4% до 34,8%. При этом доля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нейтрально, увеличилась с 33,6% до 43,2%. Среди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люди не рискуют завести семью, чаще всего называю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актор.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браков приводит к падению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Стивен Ён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Гильдии актёров США

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ёр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тивен Ён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Гильдии актёров США как лучший актёр в телефильме или мини-сериале за участие в сериале «Грызня», вышедшем на площадке Netflix.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ы состоялась 25 феврал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Ранее актёр за участие в сериале «Грызня» получил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ыбор критиков» и «Эмми». Актриса Эли Вонг, также сыгравшая в сериале «Грызня»,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в телефильме или мини-сериале. «Грызня» – комедийно-драматический сериал о двух незнакомцах, которые по воле случая встречаются во время конфликта на парковке, а затем начинают преследо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и отравлять друг другу жизнь самыми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RKI**

Тен Жанна: «Вдохновл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и достигать!»

На состоявшейся 25 февраля 2024 г. в Ансан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м собрании АКР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а избрана Тен Ён Сун (정영순 Ж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иглашенный профессор Инчон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 которо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ни.

– Жанна, во-первых,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такой больш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так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не все хорошо представляют, что это за организация, можно будет вначале рассказать о ней, ее целях.

– АКРК – э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ащищающая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АКРК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ы коре-сарам в правовой сфере и добивается изменений в их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А также, учитывая, что все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бъединяет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хожий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АКРК развивает внутренний нетворкинг с целью взаимного общени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содействия в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Иными словами, мы живем и работаем в Корее. Будучи чле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ы станови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на реке Хан, но и свидетелями реализа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ов 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е огромную силу имеют профсоюз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о есть,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свою волю, можно сделать это именно через эти сам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АКРК.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сарам есть и способ привлечения к себе внимания, и инструмент влияния на политику государства, потому что мы все, корейцы с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хотели бы обрести в Корее свою родину.

– Почему Вы решили вступить в эту организацию?

– Я в Ассоциации с 2021 года. Меня всегда очень волновали вопросы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е, а позже увлекла и тема правового статуса коре-сарам в Корее, и пришло понимание, что мы сам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из стран СНГ, можем ускорять процесс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ак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так и соблюдения истинных принципо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и интеркультурализма.

Безусловно, это совпало и с внутренней зрелостью, побудившей к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и персон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оэтому я готова 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энергией и временем во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в котором живу.

– Какими вопросами занимались в АКРК лично Вы? Как вновь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к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считаете приоритетными?

– Сначала возглавляла Комитет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инициируя раз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позже стал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Во внешнем поле хотелось бы акцентировать внимание на а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е только с други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в Корее, но и усиление консолидации и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между все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оре-сарам стран СНГ. Внутренний вектор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где плотно проживают коре-сарам. Под эти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мобилиз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кампан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искусси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к проблемам соци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для конкретного региона.

– Знаю, у Вас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был очень сильный соперник, очень деятельный и компетентный человек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 Мой оппонент на выборах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КРК



Евгения Цхай, безусловно, известный человек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движении коре-сарам как в самой Корее, так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Признавая все ее достоинства и опыт,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рамк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независимо от результатов голосования) приведет к синергии в будущем и в итоге сможет принести гораздо больший результат для всей наш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жели мы будем двигаться параллельно.

– Наверняка, у многих было чувство недоумения, почему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ка стала лидером коре-сарам в РК?

– Да, все верно. Отношение к избранию лидера коре-сарам в 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ки было неоднозначным как среди сам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так и для внешних наблюдателей. Если и есть различия в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ебя в странах, из которых мы приехали, то в самой Корее у нас, нынешн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 только один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 고려인동포 (русскоязычны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с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о и общий языковой и культурный бэкграунд. Прогрессивнее будет не тянуть за собой шлейф старых разногласий, а устремить свои взоры вперед в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создается сегодня.

– В свое время мы представляли Вас нашим читателям как директора и основателя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Как идут там дела?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уже слаженный, хорошо работающий организм. Состав учителей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лице завучей прекрасно справляются без моего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и всецело поддерживают меня в новом поле.

–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ы являетесь приглашенным профессор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чон, что преподаете? Спрашиваю, так как знаю, что у Вас есть право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стати, есть ли время заниматьс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ой?

– Я преподаю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тудентам. Статус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зволяет мне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ях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форумах. За последние 2 года я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ами на 6 конференциях по темам прав коре-сарам в Корее и проблемах языковой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е.

– Можно еще раз напомнить, почему решили выбрать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именно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 Причин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во-первы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были не просто м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ью, это был как «зов предков» – глубоко спрятанное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этническим корням, которо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силивалось. Также я желала, чтобы мои дети выросли, окруженны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питывая её в себя, как неделимую часть своей личности. И, наконец, ро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а я в то время с семьей проживала в Москве, поэтому переезд в Корею предоставил возможность укрепить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вязь с ними, проживая близости и заботясь о них.

– Отношение Ваших родных к избранию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АКРК?

–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ля меня – это новый вызов в моей жизни. Мои родители всегда были для меня образцом глубокой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После выборов, узнав о победе, папа написал мне короткое сообщение «Горжусь тобой». Это было всего второй раз в моей жизни, когда я услышала от него подобные слова. (Первый раз после защиты диссертации).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и очень важны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я на правильном пути. Больше мне нечего добавить.

– И конечно же, не могу не спросить про Ваши планы.

– Вдохновл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и достигать!

– Интервью с Вами выходит прямо 8 марта. Поздравляю с этим прекрасным праздником, желаю женского счастья, много тепла и любви, удачи и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всех поставленных планов.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КРК)

YouTube - лидер среди мобильных платформ в РК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просмотров контента на глоба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потокового видео YouTube составила в РК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40 часов в месяц.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выборочного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ервисом WISE App,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анализе рынка товаров и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льзователи систем Android и iOS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провели на YouTube ре-

кордные 111,9 миллиардов минут. Это в 2,2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январе 2019 года.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также вырос в два раза - с 21 до 40 часов.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YouTube стал наиболее используемой мобильной платформой в РК, число актив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оторой составило 45 млн 650 тыс. человек.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елигиоз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120 народов. Работают 139 религио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ее 40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У нас самая большая палитра народов – разнообразная, яркая и красочная. Вызывает гордость, что все мы живем как единая семья, уважаем и чтим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друг друга. Нас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общая цель – развити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ашей Родины.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мы слушал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которо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казало правильность нашего общего пути. Сегодня мы должны сплотиться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Вместе нам все под силу,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Так,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К пример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ых конкурсов поддержано 3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а на общую сумму 3,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2024 году – еще 3 проекта на 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заявки продолжают принимать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ся обучающие семинары, форумы, круглые столы, национальны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и памя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хранение добры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религиозных отношений. Власти области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участвуют в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и архиепископ Никан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о сложное время общество объединилось, чтобы помочь российским воинам.

– Сейчас идет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епархия и прихожане оказывают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оциаль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и членам семей наших воинов. Так,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мы собрали и отправили 9 тонн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более 3 тысяч окупных свечей. В эту работу вовлечена в том числе островная молодежь. Это находит отклик – прихожане получают видео и письма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роме того, наши священники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й посещают зону СВО, – рассказал архиепископ Никанор.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в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к Сун Ок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словам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ых бойцов.

– В 2022 году общество, власть и бизнес объединились для поддержки земляков, призванных в зону СВО, и их семей. Образовалась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В нее вошл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общины, землячества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сахалинцы, желающие помочь нашей арм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оже не смогла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М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водили концерты дл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готовили им блюда, закупили материалы, лекарства, оказывал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жителям Луганской 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 подчеркнула Пак Сун Ок. – По просьбе бойцов, которые соскучились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мы отправили в зону СВО пробную партию кимчи. Это 100 килограммов. Если ребятам понравится, продолжим готовить для них это блюдо и дальше. Будем отправлять раз в месяц.

На заседании с докладам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нна Лаврик,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права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Лиманзо. Собрание обсудило осно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в сфер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за прошлый год, обозначило планы и задачи на 2024 год.

Сахалин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ет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стартова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трассы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горы Парковой.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мут более 27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3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Вперв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ы проводим первенство страны по сноуборду. Мы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как ответ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крупнейш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готовили вс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енства. Накануне это отмети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ы качеством трасс. Сегодня

первый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открывают девушки, поэтому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участниц с наступающ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енским днём. И пожелаю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состязаний показать свои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длятся до 10 марта. Сноубордисты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в параллельных слаломе и гигантском слаломе, сноуборд-кроссе, биг-эйре и слоупстайле.

–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по всем дисциплинам. Несомненно, это важнейшие старты для сноубордистов. По итогу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юниорская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России. Поэтому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у ребят и девчат колоссальна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 всех видах представляют 23 спортсмена, – рассказала тренер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Желтова.

– Дисциплины, в которых мы участвуем, выбирает тренер. Он лучше понимает, кто сильне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тмечаю трассы, на которых проходят соревнования. Не нашла ни одного минуса: склон прямой, жесткий. Идеально для больших скоростей. На Сахалине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тут красиво и не так холодно, как я думала раньше. На острове есть, на что посмотреть, – рассказала сноубордистка из Москвы Диана Горбей.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ревновались девушки в параллельном гигантском слаломе. На старт вышли более 60 спортсменок.

Среди девушек 13-14 л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Ульяна Сверкунова, второе место у Влады Дудко (обе представляют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третьей стала Татьяна Воробьева из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 юниорок 15-19 лет сильнейшей стала Дарья Белова из Татарстана, серебряная награда у Марии Травиничевой из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бронза у Александры Сачковой из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 Мы принимаем у себя в гостях множество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Это важно дл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смотрит на эти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идит спортсменов. Поэтому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се больш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встают на горные лыжи и сноуборд, и это радует.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 своё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неоднократно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вития и доступности спорта в кажд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страны. Считаю, что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развивается на достойном уровне,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Александр Кознов.

24 постояльца заселились в новый дом-интернат в Ногликах

Современное соц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роили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с учетом особенностей людей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и инвалидов, включая колясочников. В интернате, рассчитанном на 60 жильцов,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ые к домашним.

Новое здание заменило старый интернат 1969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Пока ш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стояльцев расселили по другим подоб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А с начала этой недели сахалинцы возвращаются в Ноглики.

– Современный корпус ввел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годня учреждение уже принимает постояльцев. В новом здании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чтобы создать бытовый комфорт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В трехэтажном корпусе площадью 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вухместные комнаты с прихожей, санузлом и лоджией. Комнаты оборудованы системой экстренного вызова персонала. В здании разместили пассажирский лифт, спортивный и актовый залы, библиотеку,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столовую,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Для постояльцев разработан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четырехразовое питание. А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каждому из подопечных помогают найти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и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навыки.

– Все очень рады своему возвращению. И мы ждали этой встречи, так как за долгие годы привыкли друг к другу.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изовали теплый прием. Все обнимались. Повар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отовил более плотный ужин, чтобы люди быстрее восстановились с дороги,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Ноглик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Валентина Гурьянова.

Напомним, социа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исполнилось 55 лет. Ранее пансионат располагался в 16-ти квартирном жилом доме. В 70-е годы в нем проживал известный эвенкийский писатель и художник Семен Надеи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здания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вил акцент на том, что работ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траны должна быть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здание к 2024 году условий для активного долголетия людей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четыре новых здания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и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ят в этом году

В конце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жен заработать Центр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с опытным полигоном на базе СКБ САМИ. Сегодня сюда доставля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генерировать с помощью энергии солнца и ветра производить водород.

На полигон уже пришли элементы будущей солнечной станции – 600 панелей мощностью 500 Вт каждая. Водород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в процессе электролиза. Полностью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новейших установок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авить к 15 мая и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ровести монтаж и пусконаладку.

Сахалинский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 это первая площадка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ыиграл право реализовать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развитию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Если эксперимент будет успешен,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будет запущен водородный завод и налажен экспорт чистого топлива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ой научной площадкой. Нашим партнером в создании водородного полигона выступает МФТИ – Московский физик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 днях мы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с Москов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мени Баумана. Выпускники-бакалавры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у нас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е, технология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оизводству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другим перспек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накануне побывал на площадке будущего Центра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с помощью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на полигоне водор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итать генератор с электростанцией в Новиково – отдаленном сел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роме того, чистая энерги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нужд МЧС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ом, для вышк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в селе Огоньк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тяжелой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Запасы водорода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граничны, он выделяет много чистой энергии и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фер жизни.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пока не особо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поэтому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ный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станет находкой для ученых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Опыт работы с топливом будущего фактически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только здесь»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Отметим,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рассмотрят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 2024»,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июл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шат, какие объекты необходим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в 2025 году

15-17 марта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римут решение, какие территории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следует благоустро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ы 145 пунктов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выборе объ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люди старше 14 лет.

– Голосование – это самый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прямой связи между людьми и властью. Люди знакомятся со списком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е можн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и делают свой выбор. Сами решают, как должны меняться их города и села. А мы их желания реализуем. Такой подход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максимально точ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запрос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44 территории.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едложений выдвин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семь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Макаровский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ы предложили по три проекта, остальн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 по два.

– Радует, что активные люди сами включаются в работу даже на этапе отбора предложений. Высказывают свое мнение о том, какую территорию выстави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е. Так, к пример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ыре варианта из восьми предложили горожан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Многи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готов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омогать участникам голосования с выбором проектов традиционно будут волонтер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 Сейчас на еди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ортале ДО-БРО.РФ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237 наших земляков. Эти люди готовы заняться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ой в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Пока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поступило от жителей Макаро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Набор основного состава продлится до 14 марта включительно, –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Неустроев.

По традици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жители которых будут голосовать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ощря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районы, оказавшиеся в числе передовиков,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благоустроить не одну, а несколько территорий.

Адреса пунктов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мещены по адресу: www.национальныепроекты.рф/благоустро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월드옥타, 모스크바서 '한·러경제포럼위원회' 발대식

세계 한인 무역협회(회장 박종범, 이하 월드옥타)는 2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BC에서 '한·러경제포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2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BC에서 '한·러경제포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월드옥타)

발대식에 는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이성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스크바 소장, 이희찬 산업은행 모스크바 소장, 신광희 한·러경제포럼위원장, 월드옥타 러시아 3개 지회(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회원과 유관기관 및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22대 집행부에서 출범된 한·러경제포럼위원회는 향후 2년간 연 2회 포럼을 개최하며 한·러 간 경제협력과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광희 한러경제포럼위원장은 "한러경제포럼은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닌 실질적인 한·러 간 경제협력을 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한·러경제포럼이 한·러 경제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노력과 민간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월드옥타 회원의 발전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월드옥타 모스크바지회(회장 이민수)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박종범 회장은 이민수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소규모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옥타 본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 참여와 회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3개국 100명 선발, "모국-동포사회 발전 이끄는 인재 되도록 지원"

(서울 =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2023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월 29일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23개국에서 온 100명의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모국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장학생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24년도 1학기에 입학할 앞둔 재외동포 학생들이다.

23개국에서 온 이들은 학사과정 35명, 석박사 과정 65명 등 100명이다. 센터는 이들에게 왕복 항공료와 보험료 및 매달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 정체성 함양을 위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영근 센터장은 "수학 기간에 모국의 역사·문화 및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앞으로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에 앞장서는 인재가 되어 달라"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배 장학생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장학생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생 대표로 선서를 한 석사과정의 김승호(에콰도르) 카이스트 AI학과 학생은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고 닦아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사과정 대표로 나선 조민서(피지)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로 진출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여식에서는 기존 장학생들도 참석해 모국 유학 생활과 진로 선택의 경험과 고민을 신입 장학생들과 나눴고,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했다.

봄꽃 따라 떠나는 국립자연휴양림 여행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봄꽃 명소 소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월 28일 본격적인 봄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봄꽃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소개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1~2월부터 언 땅을 뚫고 나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는 전국의 휴양림 인근 숲속이나 등산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생화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출사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삼봉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으로, 이곳에 가면 복수초, 노루귀, 꿩의 바람꽃, 처녀치마, 팽이눈 등 이름도 재미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3월 중순 무렵부터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요즘은 군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청옥산자연휴양림과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무더기로 피어있는 노란 개나리가 반기고, 중미산자연휴양림과 가리왕산자연휴양림은 4월이면 진달래가 많이 피어 매년 휴양림에서 화전 만들기 체험을 준비해 휴양객들과 봄을 즐긴다.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만개해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은 용현자연휴양림, 용화산자연휴양림, 철보산자연휴양림, 운장산자연휴양림,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등에 풍성하게 피어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동백군락지가 있어 2~4월 동백꽃이 만개하는 천관산자연휴양림이나 4월 초 진분홍 영산홍이 빼어난 속리산 말티재자연휴양림과 신불산 폭포자연휴양림 등도 가볼 만하다.

한편, 이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봄꽃 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이나 야영을 하며 인근 지역의 축제를 함께 즐겨도 좋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이나 야영데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국립자연휴양림 봄꽃 지도



희리산해송휴양림 벚꽃 (사진 산림청)

광주고려인마을, 고령 고려인 위한 돌봄센터 개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국내에 체류하는 고령의 고려인을 돕는 '노인돌봄센터'를 최근 열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마을 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1층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의 노인돌봄센터 개소식 모습

회의실, 활동실, 조리실, 급식실 등을 갖춘 센터는 한국어 교실,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부업 지원 프로그램, 노인합창단 등을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주 5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아침과 저녁 끼니를 거르는 노년층에는 부정기 무료 급식도 지원한다.

신조야 대표는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는 광주시와 광산구 및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이 모국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마렌코 주지사, 민족간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 회의 주재

(1면의 계속)

지난해에는 인도적 구호품 9톤과 3천 개의 참요양조를 보냈다. 이 활동에 사할린의 청년들도 참여했다. 이 활동의 반응으로 교우들은 참전병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전한 편지와 영상을 받았고, 우리 성직자 대표단은 특수군사작전 지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이자 사할린주 사회회의 민족간 관계 및 공공외교문제 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옥은 사할린 장병 지원 발언에 동의한다며 "2022년에 사회단체와 정부와 기업은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떠난 동향인과 그들의 가족 지원에 동참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도 뒷받침하고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여러 민족 대표들과 함께 동원병들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했고, 음식을 장만하며, 의약품과 자재들을 구입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고통당하는 주민들에

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민족요리를 그리워하는 장병들의 요청에 따라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김치를 맛보도록 보냈는데 김치는 100kg에 달했다. 장병들이 좋아한다면 그들을 위해 이 요리를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예정이며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계획이다"라고 박순옥 사할린 한인회 회장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할린주 정부 및 주지사 행정부 제1차장 블라디슬라브 예피파노프와 사할린 주 문화고문 서부의 논나 라브리크 장관,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사할린주 사회원 의장 블라디미르 이콘니코프,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 권리 전권대표인 알렉세이 리만조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족 간 및 종교 간 관계 부문에서 주요 업무 성과를 논의하고, 2024년의 계획과 과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정부에서 전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전람회는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사업부의 지원으로 체호브 책 박물관이 주최했다고 '섬 сахалин'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 홍보부가 전했다.

새로운 전람회에 포로나이스크 아동예술학교의 학생들이 첫 견학으로 방문했다. 연극 경연의 참가신청이 2024년 1월 말에 시작된 가운데 학생들은 현재 '체호위야니(체호브의 사람들)' 연극 부문 경연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대한 극작가와 그의 최신 연극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동기획은 특별하다. 우리는 체호브의 책과 포스터, 사진, 연극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소장품들을 포로나이스크로 가지고 왔다. 이 전람회가 체호브 시대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고, '체리 정원' 창작의 역사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체호브 책 박물관 총괄 담당자인 마리아 고르부노바가 말했다.

포로나이스크 향토박물관에서 열리는 <전 러시아는 우리의 정원> 전시회는 4월 11일까지 계속된다.

В Поронай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Вся Россия – наш сад"

В Поронай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1 март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Вся Россия — наш сад", посвященная 120-летию первого показа пьесы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Вишневый сад" (на театральной сцене). Экспози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музеем книги Чехо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БУК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ервую экскурсию по новой выставке посетили ученик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Поронайска. Ребят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готовятся к участию в театр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Чеховианы",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конкурс стартовал в конце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этому школьники с особым интересом узнали о великом драматурге и его последней пьесе.

— Этот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ект — особенный. Мы привезли в Поронайск ценные предметы из наших фонд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книги, афиши, фотографии, театр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кспозиция поможет погрузи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чеховской эпохи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создания "Вишневого сада",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ный хранитель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Мария Горбунова.

Выставка "Вся Россия — наш сад" в Поронай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11 апреля.

영상을 통한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2023년 유명 메신저에서 영상통화 중 화면방송 기능을 통한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스페르 사이버보안 지식보관소가 전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메신저상에서 900 번호로 가짜계정을 만들고, 이후 프로필에서 사기 대상에게 첫 통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앱의 업데이트를 했는지 묻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사기꾼은(생체인식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영상통화로 전화를 하고, 이후 화면 공유 모드를 켜도록 요구한다. 그 다음 은행 앱에 로그인을 요청하고, 화면방송을 통해 사기꾼은 피해자의 모든 카드 정보와 계좌 잔액, 은행에서 보내는 SMS코드를 보게 한다고 전해졌다.

Россиян предупредили о новой мошеннической схеме с трансляцией экрана

В 2023 году в популярных мессенджерах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мошенническая схема – через функцию трансляции экрана в время видеозвонка. Об этом сказано в библиотеке знаний по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Сбера.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банке, аферисты действуют по следующей схеме: злоумышленник создает в мессенджере фейковый аккаунт с номером 900 и логотипом банка. По-

сле этого с профиля делается первый звонок, и жертву спрашивают, обновлял ли он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Второй мошенник звонит по видеосвязи дл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лиента по биометрии», а после этого просит включить режим демонстрации экрана.

Затем человека просят зайти в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банка: трансляция экрана позволяет аферистам увидеть все номера карт, суммы на счетах, а также коды в SMS от банка, сообщает ТАСС.

네벨스크 주민, <투자 명목>으로 사기꾼에게 5백만 루블리 송금

네벨스크 지역 한 주민이 투자 명목으로 사기꾼에게 5백만 루블리를 내주었다. 그는 개인 저축금에서 돈을 인출해 투자 명목에 속아 송금하여 경찰이 이를 범죄사건으로 기소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내무국이 전했다. 내무국 보고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자신의 저축금에서 370만 루블리를 '사업 명목' 투자에 입금하고 다음 은행 대출로 130만 루블리를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후 몇 차례 필사적으로 돈을 다시 인출하려 했으나 할 수 없어 이후 그는 사기 당했음을 깨닫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이 사건은 범죄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Житель Невельска отдал мошенникам пять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инвестиции»

Житель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нвестировал» мошенникам пять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н внес деньги из личных накоплений и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ГУ МВД России, мужчина вложил «в дело» 3 700 000 рублей из личных накоплений и еще 1 300 000 рублей которые взял в кредит.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отчаянных попыток он не смог снять деньги. Сахалинец понял, что стал жертвой обмана и обратился в полицию.

Этот факт стал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возбуждения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7-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7-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